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17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농업디지털센터 농업AX 운영 교육-13면	농업디지털센터	제민일보
○	[기고] 제주농업은 DX를 넘어 AX로 간다-14면(김태영)	농업디지털센터	한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내년부터 FTA 기금 지원 확대-3면	-	제주일보
○	체계적인 농법 전환으로 연 소득 1억원 달성-8면	-	제민일보
○	브로콜리 수확 구슬땀-3면	-	한라일보
○	“감귤 농가 일손 도와요”-6면	-	한라일보
○	제주지역 농촌창업 협력 프로젝트 성료-13면	-	한라일보

(제민일보: 2026년 11월 17일)

○ 농업디지털센터 농업AX 운영 교육-13면



농업디지털센터 농업AX 운영 교육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디지털센터(센터장 김태우)는 13일 농업디지털센터에서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제주농업AX 도우미 운영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제주농업 DX·AX(인공지능 전환) 추진상황과 제주DA 플랫폼의 주요 기능 활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11. 17.
제민일보 13

(한라일보: 2026년 11월 17일)

○ [기고] 제주농업은 DX를 넘어 AX로 간다-14면

제주농업은 DX를 넘어 AX로 간다



김 태 영

제주농업기술원 지방농촌지도사

농업 현장의 지식과 기록은 개인의 경험이나 수기 기록으로 축적돼 왔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생육·병해충·토양·농업경영 등 약 40종의 데이터를 수집·연계해 제주DA 앱으로 제공한다. 농업인은 농지별 기상과 병해충 정보, 농산물 가격, 맞춤형 보조금, 영농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제주농업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나아가고 있다. 데이터와 AI 기술로 병해충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농업경영 정보를 분석해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AI가 농지별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도입만으로 변화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농업인과 농업단체, 행정기관 등이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해야 한다. 데이터에 AI를 활용할 때 DX와 AX가 완성될 것이다.

DX가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면 AX는 예측과 분석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제주DA를 디지털 비서로 발전시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것이다. 경험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지식이 되며, AI가 다시 농업인의 힘이 되는 농업. 제주농업은 이제 DX를 넘어 AX로 나아간다.

11. 17.
한라일보 14

(한라일보: 2026년 11월 17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노지감귤

○ 수확 7~15일 전까지 부패방지제(저장병약) 살포(농약별 안전사용 기준 준수)

※ 비가 내릴 경우 3일 이상 건조 후 수확하며, 수확 후 3일 정도 예조

○ 가을비료: 11월 중하순까지 1년 총 시비량의 20% 내외 시비

※ 극조생 수확 직후, 조생은 수확 직전

양배추

○ 양분관리(10a 기준): 정식 60일 후 요소 14kg, 염화칼륨 10kg 시비

○ 수확: 구가 단단하고 탄력이 느껴질 때, 외엽 2~3매 남겨놓고 수확

브로콜리

○ 수확: 꽃봉오리 작은 꽃들이 쌀알 정도 크기가 되면 즉시 수확

- 수확 시 꽃대길이는 15cm 내외, 잎은 4~5개 붙여서 수확

○ 병해 관리: 10월 중순이후 잦은 강우로 인한 검은무늬병·검은썩음병 확산 우려 대비

- 포장 내 배수로 정비, 초기 병반 발견 시 등록된 살균제를 7~10일 간격 2~3회 살포, 감염된 식물체 제거 등

당근

○ 수확 1개월 전 뿌리 상단부가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북주기

○ 병해충관리: 검은잎마름병, 점무늬병, 무름병, 나방류 등 방제

마늘

○ 줄기꺼내기: 엽수 2~4매 확보됐을 때, 피복비닐 밖으로 줄기 꺼내기

월동무

○ 파종 후 40일 경부터 근비대가 시작되는 시기로 배토 작업 실시

○ 2차 웃거름(10a 기준): 1차 시비 후 15일 경 요소 11kg, 염화칼륨 8kg

○ 병해충관리: 노균병, 흰무늬병, 거세미나방, 벼룩잎벌레 등 예찰 방제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illegible])

11. 17. 한라일보 6

(제주일보: 2026년 11월 17일)

○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9면

▲2026제주감귤박람회 개최 △일시=11월 19일(목)~11월 23일(월)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11. 17.
제주일보 9

(제주일보: 2026년 11월 17일)

○ 내년부터 FTA 기금 지원 확대-3면

내년부터 FTA 기금 지원 확대

비가림하우스 지원 면적 상향·농업외 소득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FTA 기금을 통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16일 제주도의회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정 질문을 통해 FTA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 내년부터 비가림하우스 면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위성곤 지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비가림하우스 지원 면적 한도는 농가당 2000㎡에서 3300㎡로 상향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본인 기준 3700만원 미만에서 47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완화된 기준은 2027년 사업부터 적용된다.

오경남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집행 잔액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순히 예산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자는 뜻이었다"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비가림하우스 지원 규모가 확대[illegible]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2027년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원지정비(품종갱신·성목이식)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농업용 재해예방용 난방기 ▲보온커튼 ▲노후하우스 개보수 ▲보급형 스마트팜 ▲재해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등 16개 분야다.

원지정비 지원사업 대상 품종은 21개에서 22개로 확대되며,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9739농가에 3979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기금 587억원, 지방비 814억4800만원, 융자 683억2100만원, 자부담 920억1200만원 등이다.

좌동철 기자

11. 17.
제주일보 3

(제민일보: 2026년 11월 17일)

○ 체계적인 농법 전환으로 연 소득 1억원 달성-8면

청출어람, 나도 역대 농가 | 감귤 명인 교육생 오용준 한라봉 농가

체계적인 농법 전환으로 연 소득 1억원 달성

관행 농법과 무모한 실험정신 고집, 시행착오 겪어

토양 검증을 통한 시비, 열매 성장에 따른 수분관리

소비자 직거래 및 전용 유통 채널 구축 판매



역대 농가에 등극한 오용준 씨. 김법수 기자



역대 농가 오용준 씨(사진 오른쪽)와 감귤 명인 한라봉 강성훈 명인이 노랗게 익어가는 한라봉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법수 기자

지난 2019년 농가들의 추천과 감귤 관련 기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서귀포시가 선정한 감귤 명인은 일반 농가 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며 제주의 감귤 산업 발전에 기여 해왔다. 더불어, 수십년간 많은 공들여 축적해온 고품질 재배 비법 등을 2020년부터 감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소득 농가 육성을 위한 '역대 농가 육성 전략사업 교육' 을 통해 아낌없이 농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다. 이들의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만나 역대 농가 대열에 합류한 비결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농사의 실패, 명인 교육을 접하다

감귤 명인(한라봉 강성훈 명인)의 교육생인 오용준 씨는 10년 전 처음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숱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현재의 1000평(3306㎡) 규모의 하우스 11. 17. 제민일보 8 기 감귤농사를 짓기 시작한 가 심하게 발생하고 동해 피해도 많이 보면서 실패를 거듭했다. 그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면 누구나 다 성공하는 줄 알았다"며 재배 초기를 회상했다. 오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재배법과 무모한 실험정신만 믿고 농사를 이어가다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자포자기 상황까지 겪게 됐다.

오용준 씨는 "나이가 들면 노후 대책으로 하우스 재배 계획을 하고 정부 보조도 받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농사를 시작했지만 기존의 관행 농법밖에 몰라 농사가 잘안되고 실패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마음을 부여잡고 만감류 농사를 짓기로 결정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관리나 유지를 어떻게 해나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어느날 신문을 보고 한라봉 만감류 중 써니트라는 품종의 기사를 접하고는 이거다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딱 스쳐지나갔다.

오씨는 "이후 우연한 기회에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에서 명인 교육 관련 프로그램 신청 문자를 받게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감귤 명인 교육을 받기 시작해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감귤 명인 교육에 참여했지만, 감귤 명인들의 재배 노하우를 더 많이 습득하고 싶어 2025년과 2026년도에도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오 씨는 명인으로부터 고품질 한라봉 생산을 위한 당도 함양과 비료·병해충 관리, 전정, 수확 등의 다양한 핵심 기술과 체계적인 재배법을 교육받은 것이 한라봉 재배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돼 현재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토양 관리가 우선

명인의 고품질 한라봉 재배법을 꾸준히 익히고 실천해 본인만의 토양 특성에 맞게 대입하면서 재배 역량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시기별, 생육 단계별 위험 요인이 나타날때 마다 감귤 명인 교육을 통해 익혔던 체계적인 재배법을 하나하나 적용하며 해결해 나갔다.

오용준 씨는 "몇 년 전부터 온난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과 아열대성 집중호우 등 농가들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날씨가 지속돼 흰재발레와 응애류 등 병해충 방제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오씨는 항상 과원을 주시하고 관찰하며 병해충의 초기 발생 시 작용기작별로 기록을 해뒀다가 교호살포하는 방법으로 내성이 생기지 않게 대처했다. 이 후 비닐하우스 내부 통풍과 채광이 잘되도록 전정을 철저히 하고 환풍 팬 등을 작동해서 적절한 습도 유지를 하는데 주력을 했다.

감귤의 품질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비료 관리로, 오씨는 농사 초기 작물이 본격적으로 생육하기 전에 토양에 미리 공급하는 기비시비를 해오다 관주와 엽면시비로 바꾼 후 인력과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다. 또한 생육단계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시비 방법을 메모하고 기록해 본인의 과수원의 맞는 데이터를 구축했다.

그는 "햇빛과 물, 온도 등 이런 자연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 관리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대로 비료량에 따른 시비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과원의 토양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시비를 한 다음 나무에 열매가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수분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수확을 지향하고 당도와 산도가 가장 최적의 맛을 내는 완숙 단계에서 선별 출하를 하고 있다. 오씨는 "과실 품질별로 선별을 잘하고 좋은 품질의 과일을 소비자와 직거래 및 전용 유통 채널을 구축해 판매를 한다면 좋은 가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역대 농가 합류, 지금이 가장 행복

오 씨는 "감귤 명인 교육을 받은 후 체계적인 토양과 병해충 관리, 나무 생리 등에 대해 지식이 쌓여가며 단순히 이어오던 관행 농법에서 탈피해 어느 순간 자신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법으로 전환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 신기하고, 한라봉을 재배하며 땀흘리는 현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됐다"고 밝혔다.

한라봉 재배 초기 자신만의 고집과 관행 농법으로 여러번 실패를 겪었지만 현재 그는 다른 농가가 부러워 할만한 연 소득 1억원을 넘어섰다. 교육생들에게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재배법과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퍼주며 지역 감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 감귤 명인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한라봉 재배로 성공하기까지 체계적인 감귤 명인 교육이 큰 전환점이 된 그는 교육 참여에 그치지 않고 교육받은 재배 기술의 실천과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 9명의 교육생과 함께 명인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오용준 씨는 "막막했던 농사가 감귤 명인 교육을 받고서 착화부터 수확까지 나무 생리 상태와 그에 따른 관리 방법 모든게 새롭게 정립이 돼 체계적인 재배를 할 수 있었다"며 "저도 이런 혜택을 받았듯이 아직 감귤 명인님들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분들이 교육을 받고 목표를 달성해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법수 기자

(한라일보: 2026년 11월 17일)

○ 브로콜리 수확 구슬땀-3면



11. 17. 한라일보 3

브로콜리 수확 구슬땀 16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브로콜리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2026년 11월 17일)

○ “감귤 농가 일손 도와요” -6면

“감귤 농가 일손 도와요”

해병대 9여단 2300여명 투입
내달 11일까지 8개 지역 지원

제주지역에서 해병대원들이 수확철을 맞은 노지감귤 농가의 일손돕기에 나섰다.

16일 해병대 9여단에 따르면 이번 농촌 일손돕기 감귤수확 대민지원은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19일간 하귀·조천·함덕·서귀포·표선·남원·효돈·위미 등 도내 8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번 활동에는 총 2300여 명이 투입되며 하루 평균 120여 명의 장병들이 감귤 농가를 찾아 수확을 돕는다. 70세 이상 고령·장애인·국가유공자가 운영하는 취약농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군수참모 김기태 중령은 “이번 대민지원이 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illegible]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 9여단은 2015년 12월 1일 창설한 이후 매년 마늘, 양파, 감귤 수확 등 농촌 일손돕기 대민지원과 함께 재해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활동, 환경정화활동, 보훈행사 지원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16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농가에서 해병대 9여단 장병들이 수확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해병대 9여단 제공

11. 17.
한라일보 6

(한라일보: 2026년 11월 17일)

○ 제주지역 농촌창업 협력 프로젝트 성료-13면

제주지역 농촌창업 협력 프로젝트 성료

제주지역 농촌 초기창업가들의 연대와 동반 성장을 위한 ‘2026년 농촌창업 네트워크 호남·제주권역의 협력 프로젝트(제로 테이블 프로젝트)’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4월 참여자 모집과 5월 간담회, 7월 사전회의를 거쳐 본격화된 네트워크 활동은 8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8개 사업장을 순회하며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각 현장에서 2시간 동안 사업 운영 방안, 마케팅 전략, 원물 매입 및 위생·가공 프로세스 구[illegible]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나눴으며, 이후 제조·가공 및 시음·시식 등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11. 17.
한라일보 13